

보성다향대축제, 오감만족 프로그램 ‘풍성’

내달 2~5일...전통 다례 시연·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축하공연&워터페스타·보성데일리콘서트 등 특별한 무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대표 차문화축제,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차발 체험, 전통 다례 시연, 세계 차(茶) 문화 교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특별한 무대도 찾아온다.

5월 2일에는 제48회 보성군민의 날이 개최되어 ‘세대가 만나고 마음이 머무는 축제의 장’이라는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고, 씬이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 날 진행되는 워터페스타에는 하하&스킵, 효린, 호미들, XLOV가 출연해 5월의 무대위를 날려줄 시원한 공연을 선보이며, 오후에는 축하공연으로 나태주, 박서진,



미스김이 출연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국 최대 규모 전 군민 오징어게임,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아이도 웃고, 어른도 쉬는 야외 놀이공원 등 다양

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올해 ‘보성데일리콘서트’는 기존 야외 공연을 넘어 ‘디너파티’ 콘셉트를 새롭게 도입해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공연장 내 일부 구간에는 테이블이

설치돼 관람객이 자유롭게 지역 음식을 배식시켜 식사를 즐기며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오롯이 ‘식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밤밤을 선사할 계획이다.

공연은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5월 3일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민호, 홍자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포문을 연다.

5월 4일에는 트로트 여왕 송가인, 감성 발라드 정다경, 감미로운 음색의 송하예가 관객과 만난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대학가요제 리턴즈’ 공연이 펼쳐지며, 과거 대학가요제의 감동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는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파티 콘셉트를 도입해 공연의 즐거움에 식사의 즐거움까지 더했다”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밤밤의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내달 3~4일 개최

가야금 산조·병창·창작 등 총 14개 부문

구례군은 (사)가야금병창보존회 주관으로 제23회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오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등부, 신인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며, 가야금 산조, 병창, 창작 등 총 14개 부문에서 수준 높은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지난 4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311팀 319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특히 일반부 대상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금상 수상자는 국가유공청장상, 대학부 대상 수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

또한, 대회 개최 전일인 5월 2일 오후 5시, 섬진아트홀에서는 대회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국악인 이에람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가야금 산조·병창·창작 공연, 단막창극 ‘뽕파전’, 호남여성농악보존회 등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가야금 산조의 거장 서공철 명인의 고향인 구례는 자연과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전통 음악의 가치가 더욱 빛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시청소년수련관 ‘해피트레인’ 운영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코레일과 함께하는 해피트레인’ 기차여행을 운영,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을 탐방했다고 23일 밝혔다.

해피트레인은 코레일이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생태교육과 자연 탐구 활동을 결합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해피트레인 생태문화 체험행사는 청소년 40명이 참여했으며, 한 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왕복 열차운임, 체험료, 식비 등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또한, 코레일 직원 3명이 동행해 안전한 여행을 도우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도 전달했다. 청소년들은 국립생태원의 5대 기후대관의 생태환경을 탐구하면서 환경 파괴로 점점 사라져 가는 생태계의 소중함과 생물 다양성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청소년들은 “기차를 타고 가는 체험행사는 처음이라 너무 신났고 다양한 나라의 동식물 등 생태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곡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조사

곡성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기가구 선제적 보호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신고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곡성 희망복지단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 건강상태, 복지욕구를 파악해 돌봄·건강·생계 등 개인별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자원망과 협력하여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정확도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도 곡성군은 고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담을 꾸준히 추진하여, 읍면 복지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 연계와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순천, 中 상하이 문화상회와 글로벌 콘텐츠산업 협력방안 모색

순천시는 중국 상하이 문화상회 대표단 20명이 지난 22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두 도시 간 문화콘텐츠산업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문화상회는 중국 상하이시의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상공업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을 통틀어 120여개 기업회원을 보유한 영향력 있는 단체로 알려졌다. 특히, 2박 3일 전라남도 교류 일정 중 문화콘텐츠산업 핵심 거점으로 순천을 선정해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태·정원에 콘텐츠를 융복합한 순천시민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전략과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 등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양 도시 콘텐츠기업 간 국제 교류 및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순천 소재 웹툰 기업 케나즈, 순

천대학교도 함께 참석해 중국 현지 콘텐츠 기업 관계자와 상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콘텐츠 행사 참여, 인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곡성세계장미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준비 ‘착착’

21개 업체 참여 확정

곡성군은 곡성세계장미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인 농·특산물 판매장이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2시에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열린 운영회의에는 지역 농가 및 단체 관계자 14명과 행정 담당자 5명 등 총 19명이 참석해 판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양 우산문화공원 유아숲체험원 ‘자연 속 배움터’ 각광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 감성·창의력 ‘쑥쑥’

광양시는 광양읍 우산문화공원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학부모와 아이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산문화공원 유아숲체험원은 4~7세 유아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계발을 목표로 조성된 곳으로, 지난해 8월 산림청에 정식 등록됐다. 공원 내에서는 전문 유아숲지도사와 교사들의 지도 아래 계절별로 다양한 유

아숲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봄에는 ‘봄꽃 찾아 산책하기’, ‘개망초로 제기차기’ 등이 진행되며, 여름에는 ‘숲속 곤충 세계 탐험하기’ 등 자연의 생태를 체험하는 활동이 마련됐다. 가을에는 ‘솔잎 씨름놀이’ 등 나뭇잎과 열매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연과의 교감을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간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와 학부모, 유

오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총 21개 농가와 단체가 참여해 약 96개 품목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행정기관은 행사기간 동안 테이블, 의자 등 판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농가들의 편의를 돕고, 2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외부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홍보물을 증정하는 판촉 행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광양, 어린이날 행사 내달 3일 개최

서천번서 다양한 놀이·체험 프로그램 진행

광양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5월 3일 광양읍 서천번 일원에서 ‘2025 광양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장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식전행사는 어린이 난타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서 광양시청소년관 현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어린이날의 의미를 전한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 표창과

내빈 축하 퍼포먼스가 마련돼 있으며, 식후에는 장구 공연, 풍선아트와 버블쇼,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행사장 전역에서 ▲에어바운스 놀이터 ▲실제 장비를 활용한 소방안전체험과 경찰 체험존 ▲아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교육부스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미니게임 ▲서산나래 아이싱크기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재난 상황 대처 방법 등을 늘면서 배울 수 있는 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 4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 ‘달콤한 순천의 봄’ 행사 성료

소상공인 협업·주민 참여로 완성된 로컬 상권 축제



순천시는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반 로컬 상권 페스티벌 ‘달콤한 순천의 봄’ 행사가 1,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 대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역세권 소상공인, 마을조합,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상권과 주민이 협력하는 축제로 꾸며졌다. 9개 먹거리 부스

와 어린이 플리마켓을 포함한 12개의 플리마켓이 운영됐으며, 마술쇼·버블쇼 등 다채로운 공연과 에어바운스가 마련됐다.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다수 참여해 행사장이 한층 더 활기찼으며, 단순한 축제를 넘어 도심 역세권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다음달 3일 개최

참가자 7800명 역대 최대 신청... 풀 코스 등 4개 종목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 보성체육공원 내 공설운동장에서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보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 및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한다.

명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따라 펼쳐지는 이 대회는, 완만한 경사와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달리는 코스로 전국 마라토너들에게 기록을 세우기 좋은 코스로 정평이 나 있으며,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을 받은 국내 대표 마라톤 대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대회는 풀 코스, 하프 코스, 10km, 5km 등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4월 17일 참가 접수 마감 기준 7,8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해, 역대 최대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5km 참가자는 런닝화 또는 기념 티셔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풀·하프·10km 참가자는 반바지 또는 선글라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회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보성군이 운영하는 율포해수욕장센터를 방문해 배변호를 제시하면, 1인 5천 원의 할인 가격으로 해수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대회 당일을 맞아 교통 통제 및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 코스 구간별 교통 통제 안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 체계, 자원봉사자 배치 등 체계적인 대회 운영 준비하고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구례 지역발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군정 주요 현안 공유·지역발전 방향 논의

구례군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순호 군수와 장석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 주요 역점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척 양수발전소 조성 상황 ▲오산·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상황 ▲2025 탄소중립 홀 살리기 박람회 계획 ▲농촌유학 및 2026 전남체전 준비 상황 등 9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담당 부서의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순호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

난해 7월 출범한 제1기 지역발전위원회가 군정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특히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착공 예정인 오산 케이블카, 내년 준공을 앞둔 섬진강 보도교, 국도 18호선 4차선 확장 사업 등은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로, 위원회가 중심에서 함께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석우 위원장은 “군정이 있는 사실 그대로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들이 올바른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지역사회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례=오광범 기자